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정 주 화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정 주 화

# 인 준 서

정주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인

---

심사위원 인

---

심사위원 인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가 중학생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의 남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총 430명을 대상으로 부 양육태도 척도, 열등감 척도, 분노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0과 AMOS 18.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이라고 지각된 부 양육태도는 분노 경험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열등감과도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열등감과 분노 경험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이라고 지각된 부 양육태도가 낮은 열등감 및 낮은 분노 경험과 낮은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아들의 열등감은 두 변인 사이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이라고 지각된 양육태도는 중학생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에서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 양육태도, 분노 경험, 분노표현방식, 열등감, 남자 청소년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	8
1) 아버지 양육태도 .....	9
2) 아버지 양육태도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	11
2. 분노 .....	14
3.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분노에 미치는 영향 .....	19
4. 열등감 .....	21
5.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	24
6. 열등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	26

###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	29
2. 연구 대상 .....	30
3. 측정 도구 .....	30
1) 아버지 양육태도 척도 .....	30
2) 열등감 척도 .....	32
3) 분노 척도 .....	32
4. 자료 분석 .....	35

####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36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	37
3.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	40

####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	46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4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해지는 심리적 격동기이고 독립성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최진아, 2008).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요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환경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변 환경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를 꼽을 수 있는데,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그토록 중요한 존재가 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가 아이의 운명에 절대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장단점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가족 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전 인류를 지배하는 법칙을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는 최초의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Jung, 1970).

부모의 존재와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 환경이다(김근화, 2003). 그 최초의 사회 환경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들의 성장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장미영, 2006).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우리보다 긴 서구권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을 제시해왔다. Symonds(1936)는 제한적 태도보다는 허용적 태도가, Sears(1957)는 거부적 태도보다는 수용적 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Rollins와 Thomas(1979)는 자녀에 대한 통제보다는 지지적 태도가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여러 연구에서 지지적 태도 또는 수용적 태도는 온정적 태도나 애정



적 태도(Schaefer, 1965; Peterson & Rollins, 1987)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이상적인 양육태도로 간주했다. Baumrind(1971)는 허용적이거나 권위적인 양육태도보다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래에 들어 사회와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대부분 어머니에게만 부과되었던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아버지에게도 부과되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민규영 외, 2013).

Lamb(1975)을 시작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 양육의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역할, 도덕성, 학습능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iller, 1982; Weinuraub, 1977, Amato & Rivera, 1999; Simons, Whitebeck, Beaman & Coger, 1994). 특히 정서와 성격 체감 및 지적 발달 등에 있어서 아들이 어머니보다 동성인 아버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다(유안진 · 한유진, 1998; 유은희 · 임미옥, 2006; Boyum & Parke, 1995; Eaton & Halberstadt, 2002). 부친부재 연구들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 청소년들이 사회적, 정서적 문제들을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욱 뚜렷하게 보여, 아버지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아들의 성장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Biller & Brostelman, 1967, Hetherington & Deur, 1975). 또한 국내 연구들에서(박신, 2004; 조선희, 2005) 권위주의 등 특히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아버지 양육태도가 아들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태도가 딸보다는 아들의 성장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아버지 양육태도가 청소년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심리적 혼란

기에 있는 청소년 아들의 정서적 안정성과 공격성, 충동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박경택, 2001). 분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나가고 환경에 적응해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권혜진, 1995), 청소년기의 분노조절능력의 실패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은 그 어느 시기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Silk 등, 2003).

분노는 인간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으로서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aylin, 1984). 이렇듯 분노 자체는 역기능적인 것이 아니지만,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자신을 향해 부적절하게 표현할 때 자신의 신체적 및 심리 정신적인 손상이 초래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김귀량, 2005).

Spielberger 등(1983)은 분노를 특성분노와 상태분노로 나뉘서 설명했다. 상태분노는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해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을 수반하여 반응하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하고,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상태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경향성을 의미한다. 상태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비교적 강한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만약 상태분노가 특성분노보다 높다면, 그 사람의 분노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빈번히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지각하여, 보다 쉽고 강하게 상태분노로 반응하기 쉽다(고영인, 1994).

분노를 정서로서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분노경험은 생리적인 반응과 함께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인데 반해 분노표현은 개인이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적인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경희, 2000). Spielberger, Kranser 및 Solomon(1988)은 분노표현방식을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그리고 분노억제(anger-in)로 구분했는데, 분노조절은 분노표현의 적응적 방식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부적응적

방식으로 보았다. 예컨대, 분노의 표출이나 억제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전성희, 1995), 분노의 내적 억제 경향이 심할수록 우울 경향이 높아지며, 분노 통제 경향이 높을수록 방어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Solomon, 1997).

특히 청소년은 발달단계의 특성상 심리 사회적, 신체적, 성적인 측면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정서적 동요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짜증이나 분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김동민 외, 2003). 이 과정에서 적절한 분노표현을 학습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무력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환경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각하고,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빈번하게 일으킬 수 있다(권혜진, 1995).

청소년의 분노 경험과 분노표현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꼽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송명자, 1995; 장휘숙, 1995; 조은숙, 1994). 반면 부모에게서 거부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Carson, Butcher & Coleman, 1988),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억제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청소년 아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수용-거부, 자율-통제, 민주적-권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라 함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을 지칭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가장 예민하게 받는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의 분노 사이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열등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분노

모두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심혜숙 · 황경옥, 2001; 김춘경, 1997; 오경영, 1983; 손수연, 1988; 김은진, 2012; 이정이, 2009; 서수균, 2004; Collins, 1990).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감정의 영향으로(Adler, 1956),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과는 무관하게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섭, 1986). 적절한 정도의 열등감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열등감이 지나치면 자신이 타인보다 부족하다는 뿌리 깊고 지속적인 감정인 병적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에 빠져 자신의 열성을 극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여 현실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부당한 공격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김현, 2005).

열등감의 가장 주요한 생성 원인으로 가정을 꼽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비난, 거부, 꾸짖음의 정도와 열등감의 정도는 비례한다(Collins, 1990). 또한 열등감을 병리적으로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부모로부터의 방치와 권위주의 교육, 과보호적 양육을 들 수 있고(김춘경, 1997), 부모가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우거나 방임했을 때에도 열등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dler, 1956).

열등감은 분노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분노는 열등감의 핵심 요소인 좌절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좌절을 일으키는 열등감으로 인해 분노가 유발될 수 있다(김은진, 2012). 또한 열등감은 특성분노와 상태분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특히 상태분노를 더욱 잘 예측해준다(이정이, 2009).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열등감, 분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어머니의 그것만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동성으로서 이성인 딸들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변인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

는지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적절하게 조절되고 표현되지 못할 경우 많은 역기능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남자 청소년들의 분노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와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방식, 아들의 열등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인 것으로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는 아들의 분노경험(상대분노, 특성분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인 것으로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는 아들의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조절과는 정적 상관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인 것으로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는 아들의 열등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4. 아들의 열등감은 아들의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분노 경험(상대분노, 특성분노)과 분노표출, 분노억제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2)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와 아들의 분노의 관계에서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5.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는 아들의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양육태도

어느 사회에서나 부모는 자녀의 발달 전반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리하고 자녀의 발달 초기부터 특별한 유대감을 발달시킨다(임정하, 2003). 또한 자녀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며, 자녀정서의 사회적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Dunn & Brown, 1994). 부모의 양육태도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한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부모의 관찰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에 대한 반응 형태로 표명되어 지는 것”(정재은, 1974),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Fishbein, Ajzen & Belief, 1975) 등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Rohner(1978)는 부모의 수용과 거부를 부모행동 차원 연속선상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수용은 자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부모의 모든 행동으로서 자녀를 자발적으로 돕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이고 정의적인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Rohner, 1990). 이와 반대로 거부는 적대감과 공격, 무관심과 무시, 미분화된 거부의 형태로 나타난다(Rohner, 1984; Rohner, 1986). 적대적인 부모는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이어서 폭력, 고함, 폭언을 하고, 무관심한 부모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자녀와 거리를 두고 자녀의 욕구를 무시한다. 미분화된 거부는 뚜렷한 공격이나 적대감, 무관심의 징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달갑지 않으며, 거부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은 수용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말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며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적대는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고, 자녀를 위한 시간을 잘 내주지 않으며 비난과 체벌을 자주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율-통제 차원에서 자율은 자녀의 개성 및 권리를 존중하고 지나친 감독과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기를 권장하는 양육태도를 일컫는다. 반면, 통제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엄격하며 자녀에게 많은 제한을 두고 설명이나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기 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Baumrind(1971)는 부모 양육태도를 민주적(authoritative), 권위적(authoritarian), 허용적으로 구분하였다. 민주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생활습관 등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지만, 자녀들이 자율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양육방식으로 Baumrind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긴 부모양육태도이다. 권위적 양육태도는 엄격한 체벌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양육방식으로 이러한 부모 아래서 성장한 자녀는 위축되어 있고 불평이 많으며, 사람들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허용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지만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아서 자녀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지나친 경우 방임적인 성향을 갖는 양육태도를 뜻한다.

## 1-1. 아버지 양육태도

본래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고(Lamb, 1975), 그것이 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최경순,



1992; Stolz, 1967). 그러나 1970년대 이후, Lamb을 필두로 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초기 인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이에 따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열리게 되었다.

Lamb(1981)은 아버지의 양육이 어머니의 그것과는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고 Parke(1986)는 전통적으로 아버지들이 도구적 역할을 중요시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표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음을 밝혔다.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들은 아버지는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Lamb, 1975).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에게도 애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이영환, 1993; 최경순, 1988; Frodi, Lamb, Leavitt & Donovan, 1978) Weinuraub(1977)는 아버지가 자녀의 성역할 학습, 인지학습, 성취동기 등의 영역에서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들의 성취동기가 높고 비행이나 정신병리, 인터넷 중독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mato & Rivera, 1999; Simons, Whitebeck, Beaman & Coger, 1994). 1958년에 태어난 어린이 1만 7천 명의 성장과정을 40여년에 걸쳐 추적한 옥스퍼드대학교 자녀양육센터는 자녀들의 양육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랑자가 되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02. 3. 1; 전요섭 등 재인용, 2008).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역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Weinuraub, 1977), 성역할은 유아기부터 형성되며(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태도에 더욱 좌우된다(Mussen & Rutherford, 1963). 특히 아버지의 이해, 온정적 태도, 친밀한 접촉이 아동이 성역할을 획득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Biller, 1982),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양성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녀들이 지각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에 대해 이은화(1986)는 청소년은 자녀에게 엄격하기 보다는 친근하게 대해주고, 부모의 의사에 억지로 따르게 하기 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아버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강하고 엄격하지만 애정적인 표현을 해준다고 지각할 때 아버지의 강한 남성적 성향을 좋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각인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격 형성과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아버지 양육태도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들 사이의 경쟁자적 관계에서 벗어나 아들의 전인격적인 발달과 정신적 건강, 성적체성 확립 등에 미치는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Biller & Brostelman, 1967; Hetherington & Deur, 1975; Hoffman ML, 1970). 또한 아들에게 이성인 어머니보다 동성인 아버지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Halberstadt와 Eaton(2002)은 정서표현성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자녀가 동성의 부모에게서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유은희와 임미옥(2006)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동성의 부모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oyum과 Parke(1995)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정서표현성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연구(유안진 ·

한유진, 1998)에서 아버지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은 정서조절을 하도록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Biller와 Davis(1973)는 아버지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또래들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충동성이 덜한 반면,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그러한 경향성이 덜 나타났다고 밝혀 아버지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iller와 Brostelman(1967)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남자 청소년들은 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였고 Hetherington과 Deur(1975)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소년들의 비교 연구에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소년들이 더욱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부친부재 연구들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 청소년들이 사회적, 정서적 문제들을 뚜렷하게 보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딸들보다는 아들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여 아버지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아들의 성장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수(1999)등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의 관계가 남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역할, 애착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성분화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들의 양성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남자다움(Masculinity)은 아버지의 남자다움에서 나오기 보다는 아버지-아들 간 관계에서 따뜻한 보살핌이 있을 때 발달된다고 하였다(Bandura A, Waters RH, 1959).

남아의 도덕성 발달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졌지만(Hoffman ML, 1970)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남아의 경우 비행청소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경우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가 일어나며 내재화된 도덕성이 발달된다고 하였다(Andry RG, 1957).

남자 대학생들과 그들의 아버지와 의 관계를 연구한 조선화(2005)는 남자 대

학생들이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더욱 오래 기억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신(2004)은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밝혀 특히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중요성은 아버지가 아들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서의 성역할을 아버지의 도구적 역할과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로 구분짓는 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 연구들이(최경순, 정현희, 1995; Hetherington, 1966; Biller & Brostelman, 1967; Bandura, 1968; Hetherington & Deur, 1975)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도구적 역할을 학습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남성의 성역할을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1970년대를 지나면서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Bem, 1974; Rotundo, 1985) 여성운동의 영향과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도구적 역할은 남성이, 표현적 역할은 여성이 담당한다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지적받게 되었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보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Constantinople, 1973; Bem, 1974). 이렇게 새로운 인식의 변화에 맞춰 아버지 역할도 과거 도구적 역할 개념을 벗어나 '양성성'의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시각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Blos(1967)에 따르면 청소년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제 2의 분리-개별화 시기인데 이때의 과제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부모가 과잉보호(overprotection)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최경민 한성희, 1998; Martin G, Watie S, 1994) 아버지의 과잉보호가 청소년 남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현수 등, 1999). 따라서 청소년기의 남아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Larson

H, Richards MH, 1991) 남자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행동에 대해 아버지에게 지지받기를 원하고 덜 간섭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애착이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높다고 한다(Seigner R, 1985; Gecas V, Schwalbe ML, 1986; Block JH, 1973).

## 2. 분노

분노의 사전적 의미는 '강력한 불쾌감에 의해 수반되는 감정적 흥분상태'이며 분노는 각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정서 중 하나로서 (Keith, Elaine, 1994) 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분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Novaco(1979)는 정서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Alschuler와 Alschuler(1984)는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일시적인 내적 상태로 보았다. Sharkin(1988)은 보다 다차원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그에 따르면 분노는 다양한 정도의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운동적, 그리고 언어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 상태이며, 신체적으로는 혈압상승과 심장박동증가를, 정서적으로는 미미한 짜증에서 극단의 격노를, 인지적으로는 분노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를 동반한다고 하였다. Deffenbacher와 Mckay(2000) 또한 분노경험이 정서적, 생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은 거의 동시에 경험된다고 하였다.

분노는 인간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 Lazarus와 Lazarus(1994)는 분노를 나 또는 나의 것을 모욕하는 불쾌한 상황에 대해, 우리의 상처받은 자아가 복구될 수 있도록 그 모욕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잠재된 충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분노란 인간이 스트레

스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aylin, 1984). 그런 점에서 분노는 생존에너지의 하나로서 개인이 위협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여 피해를 줄이고 극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적응행위로 볼 수 있다(김광수, 2003). 또한 분노는 개인의 가치, 본능적인 욕구, 기본 신념들을 보존하려는 의지로서 기능을 하고(Bryce, 1986),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나 공격상황을 파괴가 아닌 불안에 대한 대처나 자기표현이 변형된 의사소통으로도 볼 수 있다(Frijda, 1986).

Izard(1977)은 분노유발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자신이 바라던 것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제지당했을 때, 둘째,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공격을 당했을 때, 셋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강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등이다. Averill(1983)은 정당성에 대한 위반 혹은 부당함이 분노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분노는 고발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즉 분노는 개인이 지각하는 부당함에 대한 반응으로 가치판단적인 것이고, 비난에 대한 귀인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분노는 감정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며 인지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감정적인 반응인 분노는 인지적인 구조라는 일차적인 반응에 의해 생겨나는 이차적인 산물로 볼 수 있다(김계현, 1993).

Spielberger 등(1983)은 분노를 특성분노와 상태분노로 나눠서 설명했다. 상태분노는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해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을 수반하여 반응하는 일시적인 정서상태를 의미하고,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상태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경향성을 의미한다. 상태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비교적 강한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만약 상태분노가 특성분노보다 높다면, 그 사람의 분노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성분노와 분노 역제가 높으면서 상태분노 역시 높을 경우, 만성적인 분노를 반영한다

(전경구 외, 1998).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여러 상황들을 빈번히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지각하여 보다 쉽고 강하게 상태분노로 반응하기 쉽다(고영인, 1994).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성분노가 상태분노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과 관련된 개인의 안정된 성향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정선화, 2004).

분노를 정서로서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분노경험은 생리적인 반응과 함께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인데 반해 분노표현은 개인이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적인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경희, 2000).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한데(Freeberg, 1982), 그 표현방식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유발된다(고희경, 2005). 즉 분노 자체는 역기능적인 것이 아니지만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자신을 향해 부적절하게 표현될 때 자신의 신체적 및 심리 정신적인 손상이 초래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반사회적 행동 등이 야기될 수 있다(김귀량, 2005). 또한 분노의 조절과 표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희경, 2005).

Spielberger, Kranser 및 Solomon(1988)은 분노표현방식을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그리고 분노억제(anger-in)로 구분했다. 분노조절(anger-control)은 분노감정을 충동적으로 외부에 드러내는 행동을 조절하고 적절한 표현시기와 방법을 찾는 분노표현으로, 분노표출(anger-out)은 분노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외부로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분노표현으로, 분노억제(anger-in)는 분노감정을 마음속에 넣고 억제하는 분노표현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분노조절은 분노표현의 적응적 방식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부적응적 방식으로 보았다. 예컨대, 분노의 표출이나 억제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전성희, 1995), 분노의 내적 억제 경향이 심할수록 우울 경향이 높아지며, 분노 통제 경향이 높을수록 방어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Solomon, 1997).

분노조절(anger-control)은 분노상태를 지각, 감독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책략을 구사하는 분노표현방식이다. 냉정을 빨리 유지할 수 있고 내부의 분노감정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황과 문제해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 방식이 우세한 개인은 분노의 충동적 표현 행동을 조절하고, 적절한 표현 시기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분노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문제를 해석하고 다루는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능력으로 구성된다(Moon & Eisler, 1983). 청소년들의 적절한 분노조절은 자신의 행동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백현주, 2008), 청소년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정화를 유도하는 분노조절이 필요하다(Cornell 등, 1999).

분노표출(anger-out)은 분노를 유발시킨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분노를 비난, 폭언,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반응을 사용한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pielberger et al., 1983). 과도한 분노표출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며, 공격적인 행동들은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에 가담하도록 부추긴다(Myerrs & Burket, 1992).

분노억제(anger-in)는 분노억압(suppression) 혹은 분노의 비표현(non-expression)을 의미하며, 분노사고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억제된 분노는 억제되지 않은 분노보다 강한 고통을 일으키고 분노의 방향을 내부로 돌리는 것이며, 사람을 피하고,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타인을 비난하게 한다(Milligan & Walker, 2000). 억압되거나 회피된 분노가 오랫동안 강하게 지속되면 자신과 타인을 향해 파괴적인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Quartana & Burns, 2007). 분노억제의 장기간 지속은 신체병리의 악화와 스트레스성 궤양,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Pennebaker, 1988; Renneker,



1990).

심리적 혼란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고 환경에 적응해나가는데 분노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청소년기의 분노는 주로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불안정한 가정 및 학교환경, 상실감, 좌절감, 그리고 독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주로 물리적인 자극과 생리적인 자극에 의해 분노가 발생하는 반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 분노유발 원인이 대인관계로 옮겨가게 된다(권혜진, 1995).

청소년은 발달단계의 특성상 심리 사회적, 신체적, 성적인 측면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정서적 동요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짜증이나 분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김동민 외, 2003). 이 과정에서 적절한 분노표현을 학습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무력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환경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각하고,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빈번하게 일으킬 수 있다(권혜진, 1995).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평온과 안락이 위협될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기는 분노조절능력의 실패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Silk 등, 2003). 이들에게 분노는 좌절, 우울, 의존성과 강한 연관성을 가져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되기 쉽다(Freeberg, 1982).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분노는 통제하기 어렵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Anderson & Bushman, 2002). 과도한 분노억제 역시 내면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Barlow, 2000), 분노를 내재화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 절망감, 자살 시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ates, 1996).

이와 같이, 분노조절의 실패는 공격성, 정서적 안정성, 충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므로(박경택, 2001), 청소년들이 갈등과 좌절 상황 속에서 분노

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arson, 1992).

### 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분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분노 경험과 분노표현방식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노 표현이 다른 사람들의 분노표현 방식을 학습하면서 생겨난 반응이라고 보는 관점이다(김계현, 1993).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관적인 행동 방식 속에서 자녀는 사회적인 습관체계를 구축하여 특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자녀가 분노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방식도 부모의 행동양식을 학습하면서 나타난다. 부모가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과 가족 간에 용납될만한 화풀이 대상을 보면서 자녀가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운다는 연구(Cummings, 1984)는 부모가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동이 자기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운다는 연구(Kassinove & Eckhardt, 1995)와 일맥상통한다.

Averill(1982)은 분노를 문화와 하위문화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강화를 통해 유지되는 정서라고 정의하였고, 과거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이 새로운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인의 초기연령 동안 부모와 또래집단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는데, 부모 및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언제, 어떻게 분노를 느끼고 표현해야 하는지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본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분노와 표현방식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자녀에게 어떤 양육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분노는 대인간의 정서로 그것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과 관계가 깊으므로 가족이나 친구처럼 긴밀한 접촉을 갖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의 감정이 더욱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Averill, 1983).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성장과 발달,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들의 분노 경험과 표현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수용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는 지적 성장, 이타심, 사회성, 도덕성이 발달되고(송명자, 1995), 기본적 신뢰감, 자신감, 안정감이 형성되며(장휘숙, 1995; 조은숙, 1994), 자율성과 독립심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usec & Goodnow, 1994). 반면 부모에게서 거부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Carson, Butcher, Coleman, 1988)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억제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거부적일 때 분노를 억압하거나 표출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윤일, 2005). 특히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의 분노표출적 표현방식이 가장 큰 상관성이 있었고(채유경, 2001) 정윤성(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라고 지각한 집단에서 아들의 분노 억제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부모가 허용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면 자녀들의 공격성은 높아지는데 이렇게 올바른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고 이러한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을 불러일으킨다(Kassinove & Sukhodolsky, 1995). 이러한 거부당한 경험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자녀의 행동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

음을 갖게 해서 직접적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Stuart & Sundeen, 1987).

부모 양육방식 중 거부, 통제, 비밀관성이 자녀의 분노, 적대감, 신체적·언어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부모의 정서적 따뜻함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거부'는 자녀의 분노, 적대감, 공격성을 설명해주는 가장 유의한 변인이었다((Muris 등, 2004).

한편, 부모로부터 방임되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언어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오진환, 2002), 신체적 체벌을 받은 아동일수록 분노를 더욱 빈번히 표출했다(박정희, 1998).

이와 같이, 청소년의 만성적인 분노와 공격성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인 태도, 과잉보호, 무관심,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주로 발견된다(이문자, 2003; 김경, 2005).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인성발달과 사회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이숙, 1987; 이원영, 1983), 부모와 청소년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cker, 1964).

#### 4. 열등감

열등감이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자기 자신이 남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감정의 영향이다(Adler 1956). 따라서 열등감은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섭, 1986).

Maltz(1989)에 의하면 현대인들 가운데 95%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청소년

년들에게는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 임상적으로 열등감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으며(김계현, 1995),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평가적이고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실제 능력에 비해 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김웅만, 1995).

열등감은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Adler에 의해 처음 논의된 개념으로 그는 '열등'과 '열등감'의 개념을 확연히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Adler, 1975). '열등'은 보통의 수준 혹은 다른 사람이나 개체 등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을 나타내는 상태나 사람을 의미하므로 다소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열등감'은 실제적인 열등함보다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Adler(1956)에 따르면 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Allport(1961)는 열등감을 자신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병적인 태도로부터 발생하는 강하고 지속적인 긴장상태라고 정의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타인보다 못하다는 무능감과 관련 있는 것이다(신만철, 1992). Erikson(1959)은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네 번째 단계에서 근면성 대 열등감을 자아발달의 기본 갈등으로 들었다. 이 단계는 약 6세부터 11세의 아동에게 해당되는 단계로서 이 시기 동안 건강한 자아성숙이 이루어지면 근면성을 형성시켜 기본적인 문화기술이나 유능성을 학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패경험을 갖게 되면 학습추구에 대한 용기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된다.

열등감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는데 Collin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오성춘, 1995).

첫째, 열등감은 대체로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에서 받는 비난, 거부, 꾸짖음의 정도와 열등감의 정도는 비례한다.

둘째, 열등감은 비현실적 기대에서 비롯된다.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와 이상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높을 때 실패에 따르는 열등감을 맛보게 된다.

셋째,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릇된 확신은 열등감을 갖게 한다.

넷째, 사회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대중매체는 열등감을 갖게 하는 환경적 요소가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열등감이 더 강화되어 병적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에 이르게 된다. 병적 열등감이란 자신이 타인보다 부족하다는 뿌리 깊고 지속적인 감정으로 병적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감을 잃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거나 잘못된 태도와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정도의 열등감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Adler(1956)는 모든 개인의 진보, 성장,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열성을 주체적으로 의식하게 되면, 이를 보상하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열성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지나친 병적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이 심해질 때 문제가 되는데 이 때 개인은 자신의 열성을 극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여 현실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부당한 공격행동을 나타낸다(김현, 2005). 열등감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무기력함,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부적절한 느낌,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등의 정서 장애와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과 망상증 등의 정신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김영아, 1996). 이렇듯 열등감은 모든 심리적 병리현상의 일차적 원인이어서, '정신병리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Adler, 1973).

열등감은 성격이 형성되어가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

가 된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남과 자신에 대한 비교가 늘고 이로 인해 스스로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의 열등감도 건강하게 극복될 경우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서적 불안정, 낮은 자존감, 자신감 부족 등 전반적인 부적응을 낳을 수 있다(송현중 외, 2003).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에게 열등감은 그들의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열쇠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경미(1999)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 전원이 모두 높은 열등감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김용만(1995)은 열등감이 심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열등감이 심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싫어하며, 수용적이지 못하다.

둘째, 자신의 좋은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나쁜 점을 강조한다.

셋째,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나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부정적인 태도와 거부감 등을 갖는다.

넷째, 어떤 문제를 고정관념으로 보고 그것에 집착한다. 다양하게 보는 시각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비합리적 사고를 한다.

다섯째,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며, 도전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이, 지나친 열등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고 특히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등감을 잘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의 열등감은 문제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중 · 고등학생의 경우 94%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문병녀, 1996). 청소년기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개발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인데 열등감은 청소년의 정신발달에서 생기게 되는 필연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등감은 청소년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Les Parrott, 1993).

아동과 청소년들의 열등감 생성원인에 대한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환경 즉 부모의 태도,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의 관계, 형제의 수 등을 들고 있다(심혜숙 황경옥, 2001). 김춘경(1997)은 열등감을 병리적으로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방치된 아동과 권위주의 교육, 과보호적 양육, 형제간의 비교를 들었고, 오경미(1999)는 이혼가정과 같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높은 열등감의 원인이 부모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잔소리, 조소적 대우, 모멸, 꾸짖음 등이 열등감의 원인이 되며(오경영, 1983; 손수연, 1988), 열등감은 대부분 중요한 타인, 즉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생기므로 열등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희정, 1999).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양육방식,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자녀의 열등감 생성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열등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Adler(1956)는 열등감이 유아기 때의 무능력감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우거나 방임했을 때 열등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Collins(1990)는 열등감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므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대부분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부모로부터 비난이나 창피, 거



부, 꾸짖음을 많이 경험할수록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양미라(200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하는 자녀들은 신체, 사회, 가정, 지성, 학업, 성격에 대한 열등감에서 수용적 양육태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여 이들의 열등감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 김성연(1981)은 엄격한 부모양육 태도, 모순되는 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열등감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홍준표(1974)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심한 욕구불만과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을 때 자녀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기 쉽고, 자기 통제가 어려워 사회적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열등감을 쉽게 갖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정명교, 1983). 유안진과 서봉연(1982)은 부모의 과잉보호가 자녀의 불안, 우울, 초조함을 강화시키고 신경질적이며 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과 사회적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준(2004)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역기능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신체열등, 사회열등, 가정열등, 학업열등 등 여러 측면의 열등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범제(200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애착유형이 애착유형, 무시하는 유형, 몰입된 유형, 두려워하는 유형 순으로 열등감 증후 점수가 낮게 나와 애착 유형과 열등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열등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 6. 열등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분노는 열등감의 요소인 좌절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좌절을 일으키는 열등감으로 인해 분노가 유발될 수 있다(김은진, 2012). 그러나 아직까지 열등감과 분노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없고 열등감

이 공격성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조명 받아왔다.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Adler(1971)는 열등감에 빠졌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증후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그 증후를 크게 공격성과 후퇴로 구분했다. 특히 그는 공격적 행동을 통한 노력이 자존감을 보존하고 권력이나 우월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방법이라고 하였다(임기홍, 2000). 공격적 방법으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열등감을 계속 느끼게 될 경우에 자신의 열등이나 실패를 타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이것이 실패했을 때는 타인을 향한 공격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서은숙, 2009). 이런 현상이 심할 경우에는 신경증이나 정신증적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고, 비난, 흑평, 공격, 투쟁 등의 과격한 행동이나 일탈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한다(김웅만, 1995).

그러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성이 발견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원인인 중재변인의 존재 가능성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중재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분노 통제 변인을 들 수 있다(김진영, 2010). Ekman(2003)에 따르면, 분노는 공격행동이 표출되는 동기적인 상태에 해당되므로 분노를 통제하는 양식은 공격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정도의 열등감을 느끼더라도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공격성을 덜 보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열등감으로 인해 촉발되는 분노는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분노가 공격행동 및 비행행동의 주요 유발인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Feindler, 1989). 즉 열등감이 불러일으키는 좌절은 공격적 행동에 대한 준비상태인 분노를 일으키며, 공격은 공격적 행동의 내부

적인 힘인 분노와 외부적 자극인 공격적 단서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정이, 2009).

이정이(2009)의 연구에서 열등감은 특성분노와 상태분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특히 상태분노를 더욱 잘 예측해주었다. 또한 성격적으로 분노를 쉽게 경험하는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분노 유발이나 증폭 과정에 관여하는 인지적 과정들이 비합리적이고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Ellis, 1997).

서수균(200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재적인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해석을 반영하는 일차적 분노사고를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중 '배려, 이해, 존중 받지 못했다'(40%)와 '무시나 모욕을 받거나 거부당했다'(27%)가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 가치감의 훼손이나 위협감이 일차적 분노사고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곧 일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 행동이나 양상을 반영하는 이차적 분노사고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유형 중 '무력감'은 분노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타인비난/보복'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열성을 강조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열등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즉 똑같은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서도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쉽게 판단하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분노를 더욱 자주 경험하고 비적응적인 분노표현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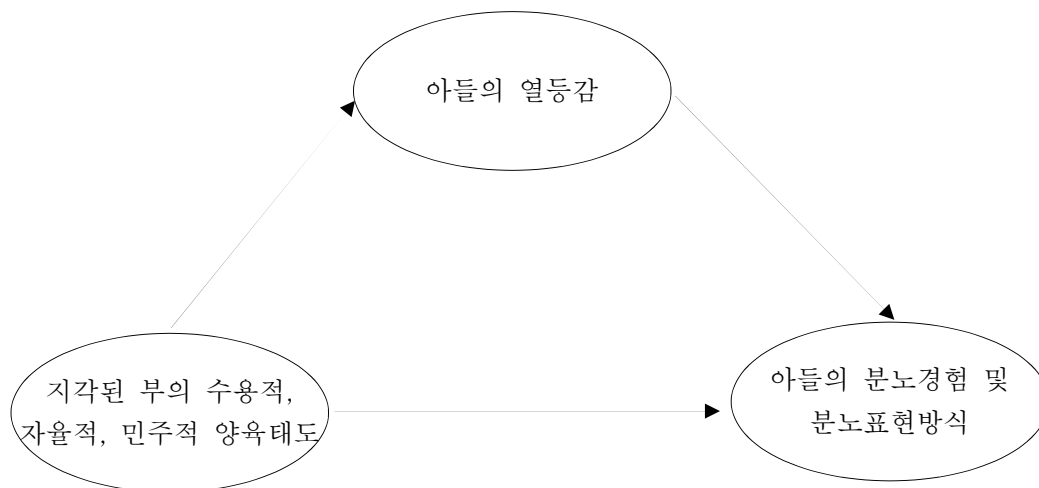
이상 열등감과 분노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열등감과 분노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열등감의 인지적 요소와 좌절이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분노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열등감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닐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아버지 양육태도, 분노, 열등감의 관계 모형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남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398부가 수거되었고, 누락된 문항이 전체 응답의 10% 이상이거나, 한 방향으로만 답하여 무성의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된 설문지 140부를 제외한 258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측정 도구

### 1) 아버지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hner(1981)가 개발하고 김언주(1988)가 번역한 부모양육태도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와 이종승, 오성심(1982)이 개발하고 김애리(1999)가 재구성한 양육태도검사, 그리고 Buri(1991)가 개발하고 김지근, 이기학(2008)이 번역, 수정한 부모권위양식척도(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PAQ)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RQ는 원판의 총 60문항 중 우리 문화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용-거부차원의 30문항에서 수용(애정, 이해, 존중 등으로 표시되는 수용적 태도)에 관한 7문항(예: 아버지는 나에게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신다)과 거부(무시, 학대, 무관심으로 표시되는 거부적 태도)에 관한 7문항(예: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나에게 고향을 지르신다)을 선별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육태도검사는 김애리(1999)가 검사의 각 하위요인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유형을 동일하게 10문항씩 모두 4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 중 자율-통제 유형만을 사용하여 자율에 관한 5문항(예: 아버지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과 통제에 관한 5문항(예: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신다),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PAQ는 Buri(1991)가 Baumrind의 부모 권위양식(허용적, 권위적, 민주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권위적(authoritarian), 민주적(authoritative)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원판에서는 각 유형 태도에 대해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특징을 보다 잘 나타내고 읽기 쉬운 문항들을 5개씩 선별하여 민주적 유형 5문항(예: 내가 가족 내의 규칙과 규제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면, 아버지는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셨다), 권위적 유형 5문항(예: 아버지는 내가 당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척도는 수용-거부 14문항, 자율-통제 10문항, 민주적-권위적 10문항 등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Likert 척도 방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정말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아버지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 구성 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수용-거부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율-통제	10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민주적-권위주의적	10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는 역채점 문항임

## 2) 열등감 척도

청소년의 열등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만철(1992)의 열등감 수준 측정 도구 등을 참고하여, 김용만(1995) 등이 제작한 40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는 문항들은 빼고 비슷한 문항들은 합쳐 중학생에게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2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열등감 측정도구의 하위영역별 내용은 신체적 열등감(예: 나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사회적 열등감(예: 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가정적 열등감(예: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학업적 열등감(예: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이며, 열등감 하위영역별 문항의 수는 각각 6문항이다. 각 문항은 5단계 Likert 척도 방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정말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열등감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열등감 척도의 하위 구성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체적 열등감	6	1, 7, 11, 17, 19, 20
사회적 열등감	6	2, 10, 13, 15, 22, 24
가정적 열등감	6	3, 5, 8, 12, 14, 21
학업적 열등감	6	4, 6, 9, 16, 18, 23

## 3) 분노 척도

청소년의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nser

와 Soloma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 STAXI-K)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가(1997)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에서는 분노경험을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측정하는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표현 방식은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를 측정하는 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경험을 측정하는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는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정서 상태인 상태분노에 관한 10문항(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과 얼마나 자주 상태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경향성인 특성분노에 관한 10문항(예: 나는 불같은 성질을 지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현방식척도는 분노에 대한 감정표현을 조절하는 분노조절에 관한 8문항(예: 나는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분노의 감정을 타인이나 물건 등 어떤 대상에게 표현하는 분노표출에 관한 8문항(예: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압하는 분노억압에 관한 8문항(예: 나는 화를 안에 간직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거의 항상 그렇다(4점)’로 채점된다.

<표 3> 상태-특성 척도의 하위 구성 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상태분노	10	1, 2, 3, 4, 5, 6, 7, 8, 9, 10
특성분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4> 분노표현방식의 하위 구성 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분노 조절	8	1, 4, 8, 11, 15, 18, 20, 24
분노 표출	8	2, 7, 9, 12, 14, 19, 22, 23
분노 억제	8	3, 5, 6, 10, 13, 16, 17, 21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상관은 SPSS 18.0.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모델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에 접근하여 AMOS 18.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주요 변인 및 하위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3)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와 아들의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연구 대상자들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Cronbach's alpha
			원점수	측정점수		
<b>부 양육태도</b>	115.12	15.231	34 - 170	54 - 151		.886
수용적	49.66	8.349	14 - 70	20 - 68		
자율적	32.53	4.021	10 - 50	15 - 46		
민주적	32.93	5.805	10 - 50	10 - 50		
<b>열등감</b>	48.39	15.543	24 - 120	24 - 89		.936
신체적 열등감	12.43	4.090	6 - 30	6 - 23		
사회적 열등감	12.96	4.748	6 - 30	6 - 30		
가정적 열등감	10.00	4.403	6 - 30	6 - 22		
학업적 열등감	13.00	4.665	6 - 30	6 - 30		
<b>상태특성 분노</b>	37.22	10.206	20 - 80	20 - 71		.921
상태분노	19.28	5.188	10 - 40	10 - 40		
특성분노	17.94	5.730	10 - 40	10 - 35		

분노조절	20.38	4.223	8 - 32	8 - 32
분노표출	16.48	4.036	8 - 32	8 - 32
분노억제	16.78	4.322	8 - 32	8 - 32

(N=258)

##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 양육태도, 중학생 아들의 분노 경험 및 분노표현 방식과 열등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이라고 지각된 부 양육태도는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출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r=-.256$ ,  $r=-.243$ ,  $p<.01$ ), 분노조절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r=.231$ ,  $p<.01$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분노경험을 적게 하고 분노표출은 덜 하는 반면 분노조절은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이라고 지각된 부 양육태도는 아들의 열등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279$ ,  $p<.01$ ).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열등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열등감은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r=.326$ ,  $r=.181$ ,  $r=.298$ ,  $p<.01$ ),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열등감이 높을수록 분노를 잘 경험하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의 하위 요인별 상관을 살펴보면, 부 양육태도 중 수용적, 민주적 양육태도는 분노억제를 제외한 열등감과 분노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자율적 양육태도는 신체적 열등감과 분노조절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분노억제는 부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열등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98$ ,  $p<.01$ ). 한편, 열등감 하위요인들 중, 긍정적 부 양육태도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 요인으로는 가정적, 신체적, 학업적, 신체적 열등감 ( $r=-.330$ ,  $r=-.241$ ,  $r=-.228$ ,  $r=-.176$ ,  $p<.01$ ) 순이었다.

<표 6> 각 변인 간 상관관계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4-1	4-2	4-3
1	1														
1-1	.91**	1													
1-2	.63**	.35**	1												
1-3	.89**	.70**	.46**	1											
2	-.28**	-.30**	-.10	-.23**	1										
2-1	-.24**	-.24**	-.13*	-.19**	.87**	1									
2-2	-.18**	-.21**	-.03	-.14*	.91**	.73**	1								
2-3	-.33**	-.34**	-.09	-.32**	.78**	.60**	.55**	1							
2-4	-.23**	-.25**	-.10	-.17**	.91**	.72**	.85**	.57**	1						
3	-.26**	-.28**	-.09	-.21**	.33**	.32**	.29**	.20**	.32**	1					
3-1	-.20**	-.22**	-.07	-.17**	.25**	.25**	.21**	.16*	.24**	.93**	1				
3-2	-.27**	-.30**	-.09	-.22**	.36**	.35**	.32**	.22**	.35**	.94**	.75**	1			
4-1	.23**	.19**	.18**	.21**	-.05	-.06	.04	-.16*	.01	-.17**	-.12	-.20**	1		
4-2	-.24**	-.26**	-.11	-.19**	.18**	.22**	.15*	.13*	.14*	.72**	.69**	.67**	-.14*	1	
4-3	-.08	-.11	.01	-.04	.30**	.29**	.31**	.10	.34**	.52**	.49**	.49**	.32**	.46**	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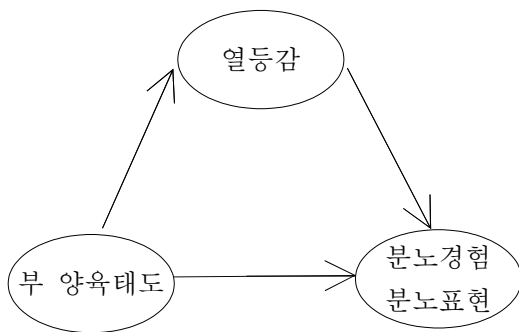
1. 부 양육태도 1-1. 수용적 1-2. 자율적 1-3. 민주적 2. 열등감 2-1. 신체적 열등감 2-2. 사회적 열등감 2-3. 가정적 열등감 2-4. 학업적 열등감  
 3. 상태특성 분노 3-1. 상태분노 3-2. 특성분노 4-1. 분노조절 4-2. 분노표출 4-3. 분노억제

### 3.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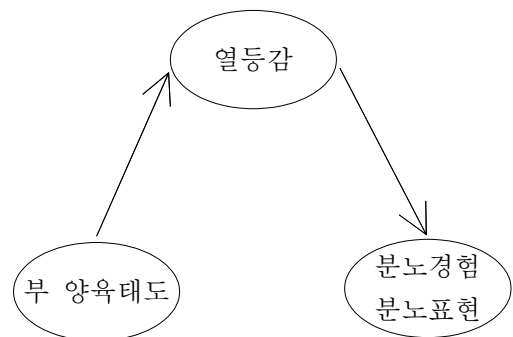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의 분노 경험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아들의 분노와의 관계에서 아들의 열등감이 부분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매개경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 1) 모형 비교와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의 분노 간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모형을 비교해서 해석이 용이하고 적합도가 좋은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는 경쟁모형 평가방법을 통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그림 3> 경쟁모형

$x^2$  검증은 경쟁모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모형 비교를 위한 검증을 하는 것으로 각 모형들의 자유도와  $x^2$  값이 증가 혹은 감소됨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07). 이 때 유의도 수준  $p < .05$  수준에서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의 차이 시, 3.84 이상의  $x^2$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이 때, 두 모형 간의  $x^2$  차이가 유의미하면 자유도가 더 작은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두 모형의  $x^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에는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선호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x^2$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이 개발된 초기에 모형 적합도 판단을 위해 많이 사용된 방법은  $x^2$  검증이다. 그러나 이 검증에서의 영가설은 “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이고, 이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을 너무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또한  $x^2$ 은 표본 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가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홍세희(2000)가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로 추천한 GFI(Goodness of Fit),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GFI와 CFI, TL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고, RMSEA는  $< .05$ 이면 좋은 적합도,  $<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 이면 보통 적합도,  $> .10$ 이면 나쁜 적합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주환 외, 2009; 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가 아들의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중학생 아들의 분노경험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조절은 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노표현의 다



른 하위 변인들과 상관의 방향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GFI=.178, CFI=.000, TLI=-.695, RMSEA=.912). 수정지수인 M.I 값을 참고하여 모형을 수정하여도 적합도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따라서 종속변인인 아들의 분노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따로 나누어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 양육태도와 아들의 열등감, 아들의 분노경험 간의 관계에서는 동일하게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FI=.177, CFI=.000, TLI=-7.218, RMSEA=1.025).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모형을 수정하여도 적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서 이 모형이 주어진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반면, 부 양육태도와 아들의 열등감,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GFI=.934, CFI=.944, TLI=.916, RMSEA=.097로 기준에 부합하게 나왔으므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RMSEA의 값이 다소 높은 편이라 수정지수인 M.I 값을 참고하여 오차항 간의 상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수정하였고, 모형 수정 이후 나타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P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52.342	22	.000	.958	.971	.952	.073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52.370	23	.000	.958	.972	.956	.07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RMSEA가 .073과 .070으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GFI, CFI, TLI 모두 .90이상으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모형 중

더욱 적절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x^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는 1이며  $x^2$  값의 차이는 .028로 두 모형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가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매개변인인 아들의 열등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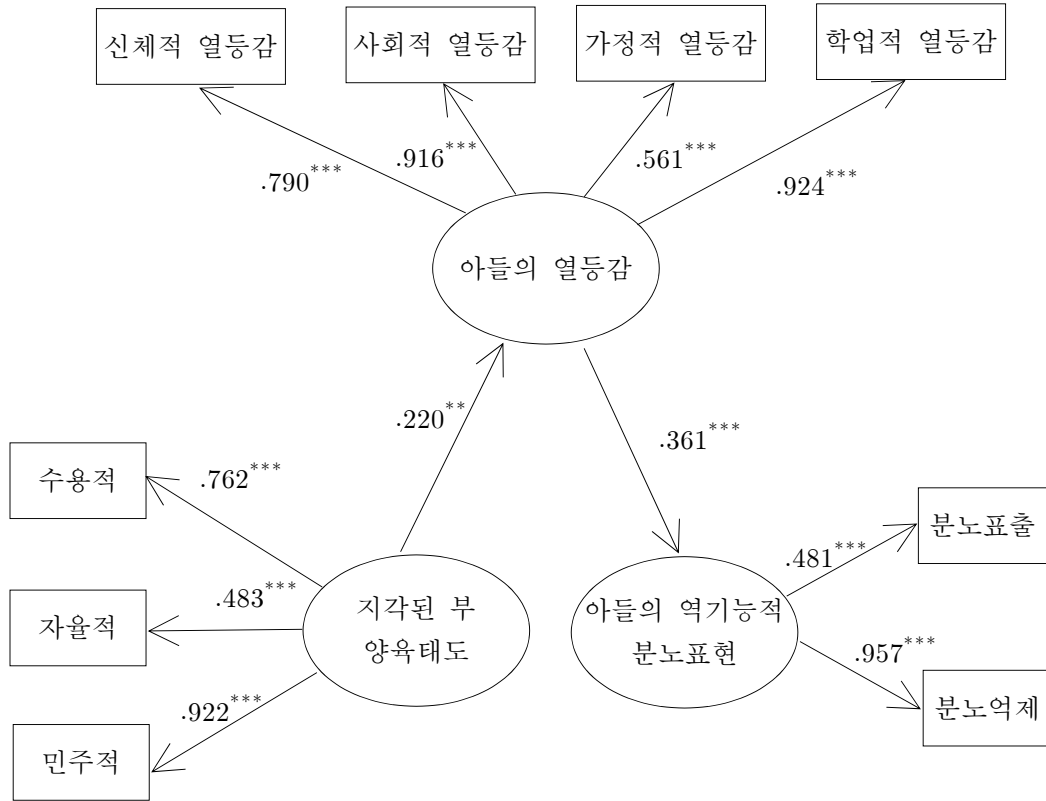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적합도가 검증된 경쟁모형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8> 모형 경로 검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S. E.	C. R.	표준화 계수
열등감 ← 부 양육태도	-.225	.071	-3.152**	-.220
역기능적 분노표현 ← 열등감	.378	.096	3.929***	.361

\*\*\* $p < .001$ , \*\* $p < .01$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부 양육태도가 열등감으로 가는 경로와 열등감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의 열등감이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이를 완전매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림 4>에 경로계수를 표시하였다.



<그림 4> 부 양육태도, 열등감,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 3)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설정한 모형의 매개효과 크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미하게 경로계수가 입증된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주요 변인들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열등감 ← 부 양육태도	-.220	.000	-.220
역기능적 분노표현 ← 부 양육태도	.000	-.079	-.079
역기능적 분노표현 ← 열등감	.361	.000	.361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 양육태도가 열등감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 효과는 -.220, 직접 효과는 -.220으로 독립변인인 부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열등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등감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 효과는 .361, 직접 효과는 .361로 매개변인인 열등감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 양육태도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 효과는 -.079, 간접 효과는 -.079로, 이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부 양육태도의 직접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각된 부 양육태도가 아들의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인인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제언

### 1. 결과 논의

본 연구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가 중학생 아들의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열등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남자 중학교 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적, 민주적이라고 지각된 부 양육태도는 중학생 아들의 분노경험 및 분노표출과는 부적인 상관, 분노조절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민주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아들은 상태·특성 분노를 덜 느끼고 분노조절을 잘했으며 분노표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민주적일 때 청소년 아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 양육태도와 자녀의 분노 간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정희, 1998; 양윤일, 2005; 오진환, 2002; 정운성, 2007; 채유경, 2001; Carson, Butcher, Coleman, 1988; Muris 등, 2004). 또한 수용적, 민주적이라고 지각된 부 양육태도는 중학생 아들의 열등감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중학생 아들이 열등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가장 주된 열등감 생성원인이 가정과 부모 양육태도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김현준, 2004; 김희정, 1999; 손수연, 1988; 심혜숙, 황경옥, 2001; 양미라, 2007; Collins, 1990)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중학생 아들은 충분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

을 남과 비교하여 열등하게 여기는 성향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생 아들의 열등감과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방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열등감을 많이 느낄수록 상태특성 분노를 잘 느끼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많이 하는 등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가 열등감의 요소인 좌절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좌절을 일으키는 열등감으로 인해 분노가 유발될 수 있다는 김은진의 연구 결과(2012)와 일치한다. 또한 열등감은 특성분노와 상태분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이정이(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이정이(2009)는 열등감이 상태분노를 더욱 잘 예측해주었다고 보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이 특성분노와 더욱 높은 상관이 있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분노를 적게 경험하고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덜 하며 열등감을 적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열등감을 많이 느낄수록 분노경험을 많이 하고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의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에서 아들의 열등감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부 양육태도는 아들의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아들의 열등감은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 양육태도가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아들의 열등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 양육태도가 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열등감과 같은 성격적인 요인이 아들의 분노표현방식에 더욱 직접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부 양육태도라는 외부환경 자체가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열등감과 같은 개인 내 성격 특성이 부 양육태도라는 외부적 환경을 청소년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 중학생들에 대한 치료에서 이들의 열등감을 다루어 주는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 양육태도 중 자율적 양육태도는 신체적 열등감과 분노조절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같은 하위 변인인 수용적, 민주적 양육태도와도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을 방치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관심과 애정으로 혼동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본 연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 양육태도, 중학생 아들의 열등감 및 분노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응답하거나 왜곡된 기억을 토대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남자 중학생들의 분노나 열등감에 아버지보다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모 양육태도를 공변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 양육태도에 따라 부 양육태도가 아들의 분노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정교한 연구 설계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시행 방법이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을 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학급에서 단체로 설문지를 시행하는 방식이 혹시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해 학생들이 방어적으로 설문에 응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실한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지를 하나씩 봉투에 봉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연구자에게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등감 척도가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항에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등감을 측정할 때 청소년들의 방어와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척도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의 분노 및 분노표현방식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각된 부 양육태도와 중학생 아들



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지각된 부 양육태도가 아들의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래서 분노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에서 열등감을 다루어 주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2, 3학년의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대상의 중요한 성격적 특성과 아버지라는 특정 대상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고경희(2000). 특성분노, 분노표현방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희경(2006).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연정(201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95).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 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가희(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1993).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범죄연구, 11, 49-64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수(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17(3), 393-410
- 김귀랑(2005). 아동의 분노표현과 또래폭력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근화(2003).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영아(1996). 정신과 의사가 원하는 열등감 치유 방법. 서울: 두란노
- 김용섭(1986). 열등감과 적응. 고신대학 논문집, 14, 163-184
- 김은진(2012). 아동기 후기의 열등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만(1995). 열등감 해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열등감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2010). 경험논문: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25-746

- 김춘경(1997). 열등감과 교육: Adler의 개인심리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5(5), 1-20
- 김현수, 조선미, 노경선, 이호영(1999). 남자 중학생들이 보고하는 부자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0(1), 113-120
- 김현준(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과 열등감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 김혜란(2006). 생활 스트레스와 분노가 여성의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병녀(1996). 청소년기 열등감과 신체상과의 관계.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규영, 신민섭, 송현주(2013).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5(1), 1~16
- 박경택(2001).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빈, 배문조(2012).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기대 및 수행과 아버지-아들관계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4(3), 161-187
- 박신(2004). 원저: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아들의 아버지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심성연구, 19(1), 33-64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민경(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격 및 자아개념.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 서봉연, 유안진(1982). 인간발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선희(2007). 부자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2(1), 105-125
- 서수균(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숙(2009). 초등학생의 열등감과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에스더(2009). 청소년의 자아방어기제 및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기현(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현중, 조성은(2003). 청소년들의 열등감 보상과 사회적 관심 증대를 위한 개인심리학적 집단상담의 효과. 상담학연구, 4(4), 755-771
- 신만철(1992). 아동기의 열등감수준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황경옥(2001).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열등감과 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9(1), 57-79
- 안승순(2014). 한부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미, 안권순(2012). 연구논문: 청소년의 분노정서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267-292
- 양미라(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귀인성향이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 양윤일(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미(1999). 이혼가정 자녀들의 열등감: 대전 분류 심사원생들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석사논문
- 오경영(1983). 집단상담에 의한 농업계 고등학생의 열등감 해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춘(1995). 열등감. 서울: 두란노
- 오윤선(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분노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91-104
- 유수린(2012).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이규미(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문자(2003).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주(2011). 청소년의 애착수준과 애착유형에 따른 열등감과 분노표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슬기(2013). 모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관계: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1993).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 장혜정(1995).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관련변인. 교육연구, 4, 39-58.
- 이은주(2008).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외(1986). 부모교육입문. 창지사
- 이정미(2009). 열등감과 분노 간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기분인식의 중재효과.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임기홍(2000). 고등학생의 열등감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옥, 송민경, 김청송(2012).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모형 연구. 청소년학연구, 19(4), 247-270
- 임정하(2003). 한국적 양육태도 척도개발과 타당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영(200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 서울:박영사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18-32

- 전요섭, 김수경, 박은정(2008).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 *청소년학연구*, 15(2), 257-275
- 정명교(1983).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화(2004). 특성분노를 보이는 여대생들의 인지 행동적 치료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성(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103
- 조범제(2006). 대학생의 생활양식 및 애착 유형에 따른 열등감 증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1994).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법문사
- 채유경(2001).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의 모형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민 · 한성희(1998). 품행장애 청소년에서의 우울, 불안 증상과 부모양육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83-91
- 최경순(1988). 유아의 애착발달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26, 411-432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 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최진아(2008). 우울, 불안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5), 123-136
- 최지애(2009).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비행의 관계에서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림(2013). 청소년의 낙관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방어기제 유형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유진 · 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  
지 36(11), 61-71

홍준표(1974).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dler, A(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nsbacher. H. L., &  
R. R. Ansbacher(Eds). New York: Basic Books, Inc

Adler, A(1975). The Practice and Theory of individual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Alschuler, C. F. & Alschuler, A. S.(1984). Developing healthy responses to anger:  
The counselor's rol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26-29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york: Holt

Amato, P. R., & Rivera, F.(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99-212

Anderson, C. A., & Bushman, B. J.(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Andry RG(1957). Faulty paternal & maternal-child relationships, Affection and  
delinquency. Br J Delinquency 8, 34-48

Averill, J. R.(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pringer-Verlag

Averill. J. R.(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November, 1145-116

Bandura. A.(1968).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S.: Prentice-Hall

Bandura. A, Walters RH(1959). Adolescent aggression: A study of the influence of  
child rearing practices and family interrelationships. New York, Ronald

Barlow, D. H.(2000). Unraveling the mysteries of anxiety and its dis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theory. American Psychology, 55, 1247-1265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4)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rkowitz, L.(1990). On the formul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ssociat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No.4, 494-503
- Biller, H. B. (1982). Father dominance and sex role development in kindergarten age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 Biller, H. B. & A. Davids(1973). A Parent-child relation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Abnormal child psychology*. Belmont, CA.:Brooks-Cole, 48-76
- Biller, H. B. & Brostelman, I. J.(1967). Masculine development: an integrative view. *The Merrill-Palmer Quarterly of Human and Development*, 253-294
- Block J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 Psychol* 2, 512-526
- Blos P(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Child*, 22, 162-186
- Boyum, L.A., & Parke, R.D.(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93-608
- Bryce, L. B.(1986). "On Man's need to have enemies: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Journal of Psychoanalytic Anthropology* 9, 101-120
- Burns, J. W., Bruঞ, S., & Quartana, P. J.(2006). Anger management style and hostility among patients with chronic pain: effects on symptom-specific physiological reactivity during anger-and sadness-recall interviews. *Psychosomatic medicine*, 68, 786-793
- Carson, R. C., Butcher, J. N., & Coleman, J. C.(1988).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8th ed.). Glenview, IL: Scollt, Foresman



- Constantinopel, A.(1973). Masculinity-famininity: An exception to the famous dictum. *Psychological Bulletin*, 80, 389-407
- Cornell, D.G., Peterson, C.S., & Richards, H.(1999). Anger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mong incarcerat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108-115
- Daffenbacher, J. L., Swaim, R. c.(1999). Anger expression in Mexican and White Non-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61-69
- Ekman, P.(2003). *Emotions revealed: Recognizing faces and feelings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life*. New York: Times Books
- Ellis, A. E. & Tafrate, T. C.(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Citadel Press
-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norton, 1959
- Feindler, E. L & Ecton, R. B.,(1986). *Adolescent Anger Control*. New York: Pergamon Press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reud, A. (1936). *The ego and the mechanism of defens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rss.
- Frijda, N. H., & Power, T. G.(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Frodi, A.M., Lamb, M. E., Leavitt, L. A., & Donovan, W.L. (1978).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to infant smile and cr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6, 1280-1290
- Gates, G. S.(1996). An observation study of Anger *Journal of Experience Psychology*, 9, 325
- Gecas V, Schwalbe M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 Marriage Family*, 48, 37-46

- Grusec, J. E., & Goodnow, J. J.(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19
- Halberstadt, A., & Eaton, K.L.(2002).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Emotions and the Family*, 34(1/2), 35-62.
- Herzog E, Sudia C(1973). Children in fatherless families. In :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Ed by B.M. Caldwell & H.N. Ricciut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therington, E. M.(1966). Effects of parental absence of sex-typed behaviors in Negro and white preadolescent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1)
- Hetherington, E. M & Jan L. Deur(1975). The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child development. In Bronfenbrenner, Urie & Maureen A. Mahoney(eds.),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413-424
- Hoffman ML(1970). Moral Development In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Ed by P.H. Mussen NewYork, Wiley
- Izard, C. E.(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 Jordan BE, Radin N, Epstein A(1975). Paternal behavior and intellectual functioning in preschool boys & girls. *Dev Psychol*, 11, 407-408
- Jung, C.G.(1970). *The Significance of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C.W.4, Routledge & Kegan Paul Ltd
- Kassinove, H. & Sukhodolsky, D. G.(1995). Anger disorders: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 Kassinove, H. (ED.). *Anger: Guilford. disorder: definision, diagnosis, and treatment*, Taylor & Francis
- Keith, O. Elaine, D.(1994). The Experience of emotion in everyday life. *Cognitive & Emotion*, 8(4), 369-381
- Kolb, L. C., & Brodie, H. K. (1982). *Modern clinical psychiatry(10th. Ed.)*,

Philadelphia: Sanders.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Wiley, 3-57
- Larson, J. D. (1992).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techniques through the think first curriculum.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8(2), 101-117
- Larson H. Richards MH (1991).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ild Dev*, 62, 284-300
- Martin G, Watie S (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 Scand*, 89, 246-254
- Milligan, R. J., & Waller, G. (2000). Anger and bulimic pathology among nonclinical wom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4), 446-450
- Moon, J. R., & Eisler, R. M. (1983). Anger contro: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three behavioral treatments. *Behavioral Therapy*, 14, 493-505
- Myers, W. C., & Burket, R. C. (1992). Current perspectives on adolescent conduct disorder. *Adolescent Medicines*, 3, 61-70
- Muris, P. M.,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 (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 Psychosom Res*, 57, 257-264
- Novaco. R.W. (1977). A stress inoculation approach to management i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7-346
- Parke, R. D. (1986). 장취숙, 황용연 역. 아버지의 역할. 창지사
- Parrott III, Les (1993). *Helping the Struggling Adolescent*.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 Pennebaker, J. W. (1988). Confounding traumatic experiences and health. In S. Fisher & J. Reason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2nd Ed.). New York: Wiley

- Peterson, G.W. & B.C. Rollins(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M.B. Sussman & S.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471-507
- Reis M, Gold D(1977). Relation of paternal availability to problem solving & sex-role orientation in young boys. *Psychol Rep*, 40, 823-849
- Renneker, R. E.(1990). Cancer and Psychotherapy. In Goldberg, J. G.(ed.), *Therapeutic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Rohner, R. P. & Nielsen, C.C.(1978).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of research and theory*, New Haven, CT: HRAF
- Rohner, R. P.(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CA: Sage
- Rohner, R. P.(1990).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3rd ed.)*. New Haven. C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llins, B.C. & D.L. Thomas(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317-364
- Rotundo, E. A.(1985). American Fatherhood: A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7-25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35
- Schaefer, E.S.(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413-423
- Sears, R.R., Maccoby, E.E. & Leven, H.(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 : Harper & Row
- Seginer R(1985). Family learning environment. the subjective view of adolescent males & females. *J youth Adol* 14, 121-131

- Silk, J.S., Steinberg, L, & Morris, A. S.(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imons, R. L., Whitbeck, L. B., Beaman, J., Spicer, P., Pan, B., & Shaw, S.(1999).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56-374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 S., & Crane, R. S.(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2. N. J. : LEA, 159-181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pp. 203-222). New York: Springer Verlag.
- Stuart, G. W., Sundeen, S. J.(1987).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3, Mosby, 403-426
- Symonds, P. M.,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 Appleton Century-Crofts,(1939)

# ABSTRACT

## **The effect of perceived paternal parenting on middle school sons'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inferiority**

Jeong, Joo-hwa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paternal parenting on middle school sons'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and shed light on the specific mechanism through which inferiority had influence on the two variables. Inventory of perceived paternal parenting, inferiority and anger were administered to 430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by SPSS 18.0.0 and Amos 18.0.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paternal parenting perceived as acceptant, autonomous and authoritativ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ger experienc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d inferiority of sons. Inferior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ger experience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s well.

Second, inferiority of sons showed a tot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ternal parenting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sons.

Last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paternal parenting, anger experience, anger expression, inferiority, male adolescent**

## 부 록

\*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의 좋은 점을 말씀하신다.	1	2	3	4	5
2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불평하신다.	1	2	3	4	5
3	아버지는 나를 창피하게 하거나 비웃기도 하신다.	1	2	3	4	5
4	아버지는 내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친구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신다.	1	2	3	4	5
5	아버지는 나에게 무섭게 대하신다.	1	2	3	4	5
6	아버지는 나의 비밀도 이야기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1	2	3	4	5
7	아버지는 내가 잘 한 일이 있을 때는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 주신다.	1	2	3	4	5
8	아버지는 나에게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신다.	1	2	3	4	5
9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1	2	3	4	5
10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잊어서는 안 될 일도 잊어버리곤 하신다.	1	2	3	4	5
11	아버지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5
12	아버지는 내가 겁이 날 때나 걱정이 있을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신다.	1	2	3	4	5
13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나에게 고함을 지르신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5
15	아버지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	1	2	3	4	5



	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16	아버지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1	2	3	4	5
17	아버지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 관한 일을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18	아버지는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다.	1	2	3	4	5
19	아버지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사다주신다.	1	2	3	4	5
20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하신다.	1	2	3	4	5
21	아버지는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22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아버지는 내게 맡겨 주신다.	1	2	3	4	5
23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24	아버지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주신다.	1	2	3	4	5
25	아버지는 의견이 다를 때, 아버지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5
26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하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27	내가 가족 내의 규칙과 규제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면, 아버지는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신다.	1	2	3	4	5
28	아버지는 내가 당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29	내가 아버지의 기대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5
30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언젠가라도 그 기대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1	아버지는 나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행동 방향이나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신다.	1	2	3	4	5

32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매우 화를 내신다.	1	2	3	4	5
33	아버지는 나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34	아버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 결정에 대해 나와 함께 의논하시고,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신다.	1	2	3	4	5

\*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평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향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응답하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용기 있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5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외모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 잘 하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키나 몸무게, 체형 등 나의 신체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아버지의 직업이 좋지 않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사교성이 좋고 인기가 많은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2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3	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는 형제나 친척들 중에 잘난 사람(직업, 학력, 지위, 명예 등)이 없어 집안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이성 친구를 잘 사귀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6	나는 능력이 있는(유능한, 똑똑한) 친구와 같이 있으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7	나는 성기가 작은 것 같아서 큰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8	나는 예능(음악, 미술, 노래, 춤 등)을 잘 하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운동선수나 운동을 잘 하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20	나는 질병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21	우리 집은 가정불화가 심해서 나는 가정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22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23	나는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24	나는 재치 있고 유머가 뛰어난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향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응답하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격분한다.	1	2	3	4
2	짜증을 느낀다.	1	2	3	4
3	화가 나 있다.	1	2	3	4
4	소리 지른다.	1	2	3	4
5	물건을 부순다.	1	2	3	4
6	분노하고 있다.	1	2	3	4
7	주먹으로 친다.	1	2	3	4
8	매려준다.	1	2	3	4
9	부글부글 끓고 있다.	1	2	3	4
10	욕을 퍼붓는다.	1	2	3	4
11	나는 성미가 급하다.	1	2	3	4
12	나는 불같은 성질을 지녔다.	1	2	3	4
13	나는 격해지기 쉬운 사람이다.	1	2	3	4
14	나는 늦어지면 화가 난다.	1	2	3	4
15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화난다.	1	2	3	4
16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17	나는 화가 나면 욕설을 한다.	1	2	3	4
18	나는 비판을 받으면 격분한다.	1	2	3	4
19	나는 뜻대로 안되면 매려주고 싶다.	1	2	3	4
20	나는 나쁜 평가를 받으면 격분한다.	1	2	3	4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 다
1	나는 화를 참는다.	1	2	3	4

2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3	나는 화를 안에 간직한다.	1	2	3	4
4	나는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1	2	3	4
5	나는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1	2	3	4
6	나는 사람들을 피한다.	1	2	3	4
7	나는 소리를 지른다.	1	2	3	4
8	나는 냉정을 유지한다.	1	2	3	4
9	나는 문을 팽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1	2	3	4
10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1	2	3	4
11	나는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1	2	3	4
12	나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	1	2	3	4
13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안으로는 양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4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1	2	3	4
15	나는 화가 나더라도 침착할 수 있다.	1	2	3	4
16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	1	2	3	4
17	나는 나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화가 더 나 있다.	1	2	3	4
1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진정을 빨리 회복한다.	1	2	3	4
19	나는 욕을 한다.	1	2	3	4
20	나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2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1	2	3	4
22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1	2	3	4
23	나는 화난 표정을 짓는다.	1	2	3	4
24	나는 화난 감정을 자제한다.	1	2	3	4